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대한 이용자 평가 및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도시주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 김천옛날숨씨마을과 경상북도 김천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Participator's Evaluation of the Rural Theme Village and Urban Inhabitants' Consciousness of Green Tourism

- Focused on the Rural Theme Village 'Yetnalsomsi-Maul' and Gimcheon City in Gyeongsangbuk-do -

장한섭* 김익환** 김영민***
Jang, Han-Seob Kim, Ick-Hwan Kim, Yung-Min

Abstract

This paper evaluate use on facilities of green tourism by participator's questionnaire and urban inhabitants' questionnaire. As the result of study, it shows follows;

- 1) To make town look more traditionally we should rebuild the buildings and the styles of roof with our own traditional rural system. And, we also change the block and brick style fence into soil or rock one instead to look rural path. The agricultural land and watercourse should be left naturally to be looked non-polluted environment.
- 2) The outdoor toilet, washing stand and distribute should be maintained and managed clearly every time. Residents' own housing also should be maintained to promote the home-stay lodging.
- 3)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people's need of agricultural product, the special market building or place that could be packed and sold the product at the same time should be built or made. And, it should be located in the harmonious spot with the natural scenery and good parking lot.

키워드 : 그린투어리즘, 농촌관광, 도농교류, 농촌정비

Keywords : Green Tourism, Rural Tour, Exchange between Urban and Rural District, Improvement of Rural District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도시민들의 소득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교통의 발달 등에 의해 혼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지역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자녀들의 자연학습과 농촌 체험, 심신수련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린투어리즘이 새로운 농촌관광의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린투어리즘이 1980년대에 정착된 서구와 1990년대 정착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린투어리즘의 역사가 짧다. 2000년 이후에서야 중앙정부 산하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린투어리즘이 도농간의 교류활성화와 정체된 농촌재생을 위한 농촌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가 짧은 만큼, 급속도로 실행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이용 및 환경에 대한 평가 및 반성 등, 기초적 연구

가 아직 충분히 실행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의 그린투어리즘의 한 형태인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지정) 중, 가장 활성화 된 김천옛날숨씨마을의 이용자와 김천시의 일반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 및 필요도, 그리고 일반 도시주민들의 그린투어리즘 전반에 대한 의식 및 평가를 설문조사에 의해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금후, 도농간의 교류활성화와 이에 따른 농촌지역의 활력부여를 위한 그린투어리즘의 개발방향 설정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와의 관계

그린투어리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세계 각국의 관광농원 및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에의 적용을 모색한 연구¹⁾²⁾³⁾, 국내 그린투어리즘의 사례를 소개하고

- 1) 이호철,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 개발 방안: 대구시 시민 농원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0집,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 pp.167-203
- 2) 유승우 외, “일본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농촌경제, 제24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p. 47-62
- 3) 김범수 외,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제16권 제1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01, pp.83-103

* 정회원,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정회원,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정회원,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그린투어리즘의 의미를 제시한 연구⁴⁾, 지역 주민의 참여에 의한 농촌 활성화방안 및 소득증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한 연구⁵⁾ 등, 주로 국내외의 사례 및 실태 분석, 그리고 농촌에 그린투어리즘을 정착시키기 위한 주민참여 가능성 및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행하여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로부터 일본 더 나아가, 도농교류의 상호 관계성에 입각하여 그린투어리즘의 실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도시주민의 시각에서 접근한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의식을 분석하여, 도농교류 및 그린투어리즘의 개발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종류의 조사를 행하였다.

첫 번째 조사는 조사대상인 경상북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중, 시설정비가 양호한 김천옛날숨씨마을을 선정하고,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 및 필요도를 평가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2006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133인 전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101인의 유효표를 얻었다(회수율: 75.9%).

두 번째 조사는, 일반 도시주민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의식 및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 번째 조사의 대상지인 김천옛날숨씨마을이 있는 김천시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린투어리즘을 이용한 경험의 유무를 불문하고 도시지역의 주택가에 거주하는 도시주민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직접 배부하여 직접 회수하는 방식의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였다. 앙케이트의 조사기간은 2008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 까지 22일간이었고, 625부의 유효회답을 얻었다. 모집단인 김천시 전체에 대한 표준오차는 신뢰도 95% 만족에 대해 3.84%이다.

상기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회답(回答)은 SPSS 12.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에 의해 통계 처리하였으며, 빈도분석, 평균값, 교차분할분석, χ^2 검증 등의 분석을 행하였다.

2. 조사대상의 특성

2.1 조사대상지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인 김천시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인구 140,464인의 중규모 도시로, 임야 및 전답이 전체 시

4) 정안성,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전북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5권 2호, 한국산림휴양학회, 2001, pp.35-49

5)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 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p.139-162

면적의 88.8%에 이르는 도시이다. 이 김천시에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험형 그린투어리즘이 두 곳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그 중 증산면의 ‘옛날숨씨마을’은 연간 방문객의 수가 약 8,000 인에 이르러 경상북도 전통테마마을 중 가장 높은 방문객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천옛날숨씨마을은 81개 농가 305인의 농업인구로 구성된 마을이며, 마을 인구 중 50% 이상이 65세 이상인 노인이다. 2003년부터 전통테마마을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70세가 넘는 전통테마마을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단합이 돋보인다.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관광시설로는 농가를 활용한 숙박시설과 마을쉼터, 체험장, 식당, 농경유물전시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 프로그램으로는 농경유물전시관 견학과 고구마 캐기, 옥수수 따기, 썰매 캐기 등의 농사 체험, 물놀이, 투호, 썰매타기 등의

표 1.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N=101인)

개인속성				가족속성 및 거주속성				
변인	집단	빈도 (N)	백분율 (%)	변인	집단	빈도 (N)	백분율 (%)	
성별	남	16	15.8	가족구성	1인가구	4	4.0	
	여	85	84.2		부부	15	14.9	
연령	30대 이하	2	2.0		부부+ 자녀	70	69.3	
	40대	22	22.2		노부모+ 부부	1	1.0	
	50대	61	61.6		노부모+ 부부+ 자녀	9	8.9	
	60대 이상	14	14.1		기타	2	2.0	
직업	자영업	20	19.8		가족수	1인	2	2.4
	회사원, 공무원	8	7.9			2인	10	11.9
	서비스업	3	3.0			3인	17	20.2
	기능직	3	3.0			4인	30	35.7
	농업	9	8.9	5인		22	26.2	
	주부	54	53.5	6인		3	3.6	
	무직	4	4.0	주거유형		단독	56	55.4
월입	100만원 미만	16	16.0		아파트, 맨션	36	35.6	
	100~200 만원	28	28.0		연립주택	8	7.9	
	200~300 만원	27	27.0		기타	1	1.0	
	300~500 만원	15	15.0					
	500~700 만원	10	10.0					
700~1000 만원	4	4.0						

표 2. 도시주민의 일반적 특성 (N=625인)

개인속성				가족속성 및 거주속성			
변인	집단	빈도 (N)	백분율 (%)	변인	집단	빈도 (N)	백분율 (%)
성별	남	317	51.0	가족구성	독신	49	7.9
	여	302	48.6		부부만	55	8.9
연령	30대 이하	318	50.6		부부+ 자녀	137	22.1
	40대	236	37.5		노부모+ 부부	335	53.9
	50대	69	11.0		노부모+ 부부+ 자녀	40	6.4
	60대 이상	5	0.8		농촌거주경력	도시에서 태어나 출근 도시에서만 살음	180
직업	자영업	14	2.3	도시에서 태어났으나 농촌에서 산적이 있음		80	13.0
	화이트칼러층	472	76.6	농촌에서 태어났으나 곧바로 도시로 이주했음		88	14.3
	서비스업	40	6.5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생활을 하다 도시로 이주했음		264	42.9
	기능직	13	2.1				
	전업주부	55	8.9				
업	학생	15	2.4				
	기타	36	5.5				

활동적인 놀이 체험, 감자부각, 두부, 찜빵 등의 먹거리 체험, 천연 염색 등의 전통테마체험 등이 행하여지고 있다.

2.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첫 번째 조사대상 마을인 김천옛날숨씨마을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개인속성을 보면 성별에 있어서 남녀가 각각 15.8 %, 84.2 %로 5배정도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2.0 %, 40대 22.2 %, 50대 61.6 %, 60대 이상이 14.1 %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직업분포는 주부가 5할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19.8 %, 농업 8.9 %, 회사원·공무원 7.9 %, 무직 4.0 %, 서비스업과 기능직이 각각 3.0 %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16.0 %, 100~200만원 28.0 %, 200~300만원 27.0 %, 300~500만원 15 %, 500~700만원 10.0 %였으며 700~1000만원의 고소득층은 4.0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가족속성에 있어서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가정이 전체의 70%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가정 14.9%, 노부모와 부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8.9 %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4인 가족이 35.7 %로 가장 많았고 5인 가족과 3인 가족이 각각 26.2 %, 20.2 %이었으며, 부부가족이 11.9 %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유형은 단독과 아파트(맨션)이 각각 55.4 %, 35.6 %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조사의 응답자 특성(표2)은, 성별로는 남성이 51.0%, 여성이 48.6%로 거의 동물이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7.5%로 가장 많고, 30대가 30.4%, 20대가 20.2% 순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 등 화이트컬러층이 76.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외 전업주부가 8.9%, 서비스업 종사자가 6.5% 순이다. 가족구성은 자녀와 동거하는 2세대 가족이 53.9%로 반수를 넘고, 부모님과 동거하는 2세대 가족이 22.1%로 다음 순위를 점하고 있다. 또, 농촌의 거주경력은,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생활하다가 도시로 이주했다는 응답자가 4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시에서 태어나서 줄곧 도시에서 살았다는 응답자가 29.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농촌에서 태어났으나 곧바로 도시로 이주한 응답자는 14.3%, 도시에서 태어났으나 농촌에서 살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13.0%로 나타났다.

3. 그린투어리즘 이용자 평가

3.1 방문실태

김천 옛날숨씨마을 방문객의 방문 실태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지인 김천 옛날숨씨마을을 제외한 다른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방문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57.4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회 이상 방문 경험자도 42.6 %에 달해, 다른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이용도도 상당히 높

표 3. 조사대상자의 방문실태 N=101인

방문 실태	구 분	빈도 (N)	백분율 (%)
해당마을 외 다른 농촌전통테마마을 방문경험	없다.	58	57.4
	1회	27	26.7
	2회	9	8.9
	3회	4	4.0
	4회 이상	3	3.0
방문시 체류기간	반나절	12	11.9
	하루종일	26	25.7
	1박	60	59.4
	2박 이상	3	3.0
방문 목적 (다중응답)	농촌의 자연과 경관을 즐기기 위해	31	30.7
	아이들의 교육과 학습을 위해	13	12.9
	향토음식을 맛보기 위해	28	27.7
	함께 간 사람들과의 친목을 위해서	14	13.9
	신선한 농산물 구입을 위해	11	10.9
	농촌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84	83.2
재방문 의사	꼭오고싶다	15	14.8
	기회가 되면오고싶다	79	78.2
	별로 오고싶지않다	3	3.0
	잘 모르겠다.	4	4.0

음을 알 수 있다.

방문시 체류기간은 1박 이하가 97.0 %에 달해, 대부분의 이용자의 체류기간이 이틀을 넘지 않는 단기 이용자임을 알 수 있다.

방문 목적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조사해본 결과 ‘농촌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가 83.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농촌생활 체험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재방문 의사는 93.0 %가 ‘오고 싶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며, ‘별로 오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부정적인 의견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정적인 의견의 이유로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응답자가 반 수 이상에 달해, 재방문 의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3.2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농촌전통테마마을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시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5점), 만족한다(4점), 보통(3점), 만족하지 않는다(2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의 5단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질문 후, 가중평균치에 의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전체조사자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

마을시설의 만족도(그림 1)에 있어서 주차장시설에 대한 만족도(3.9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체험

학습시설'(3.57), '마을 컴퓨터'(3.57), '기존농가이용 숙박시설'(3.53), '농기구 전시시설'(3.52), '체육시설'(3.46), '식당'(3.43)이 비슷한 비율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생활편의시설'(2.66)이며, '농촌마을환경(휴담장, 기와지붕)'과 '야외화장실'도 각각 3.23, 3.03으로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편에 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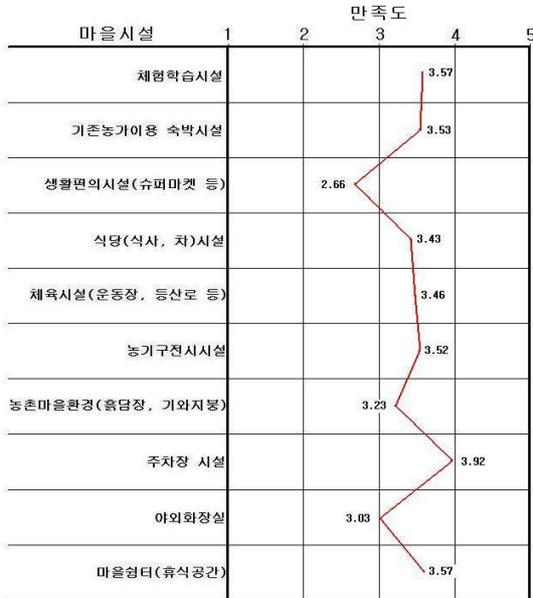


그림 1.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농촌마을환경(휴담장, 기와지붕)'의 항목이 비교적 낮은 응답을 받은 이유는 옛날숨씨마을의 가옥이 대부분 현대식 건물과 블록조 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야외 활동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화장실 및 세면장 등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슈퍼마켓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용자 연령 및 방문목적별 시설이용 만족도

연령별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장 시설'(4.29)에 대해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식당'(3.93)이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마을컴퓨터시설'(3.79), '농기구 전시시설'(3.77), '기존농가이용 숙박시설'(3.71), '농촌마을환경(3.50), '야외화장실'(3.43)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천옛날숨씨마을 이외의 다른 농촌전통테마마을 방문유무에 따른 만족도는 그림 3과 같이 전체적으로 다른 농촌전통테마마을에의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농기구 전시시설'(3.63)과 '농촌마을환경'(3.33)에 대해서는 다른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방문경험이 없는 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 결과로 볼 때, 농촌마을환경에 있어서 과거 방문했던 다른 농촌전통테마마을보다 김천 옛날숨씨마을의 농촌마을환경이 비교적 나쁜 것으로 볼 수 있어, 농촌마을환경에 있어 정비가 필요하고 농기구 전시시설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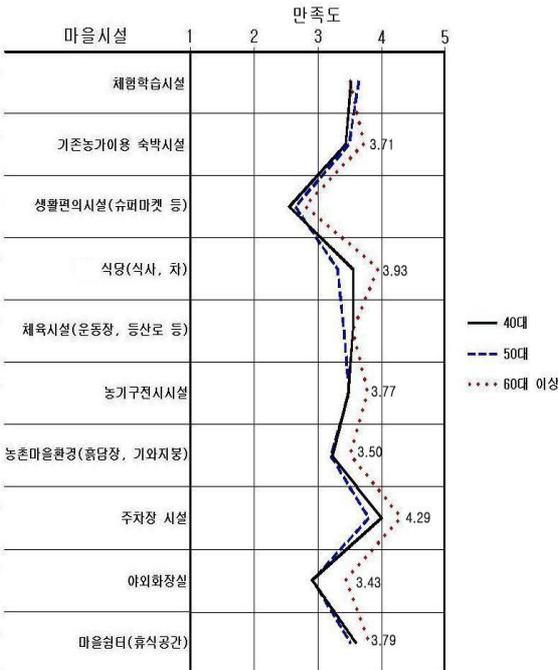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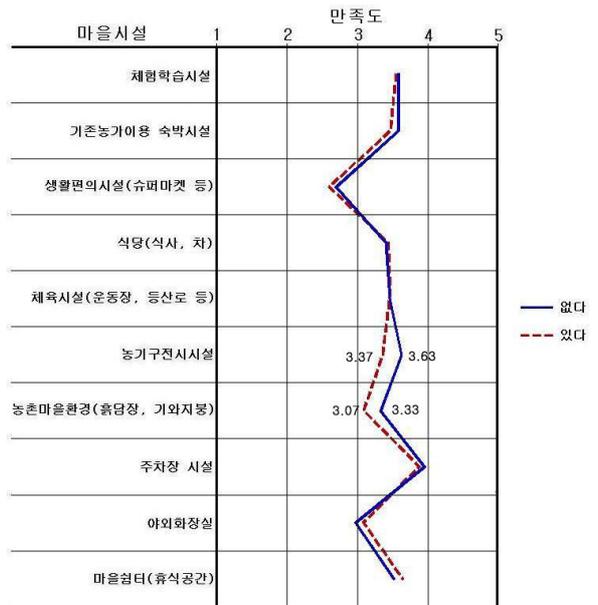


그림 3. 타농촌전통테마마을 방문경험의 유무에 따른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표 4. 방문목적별 시설에 대한 만족도

방문 목적 시 설	농촌 경관	자녀학습 기회	향토 음식	친목 도모	농산물 구입	농촌생활 체험
체험학습시설	3.69	3.45	3.56	3.64	3.50	3.56
기존농가이용 숙박시설	3.76	3.44	3.58	3.46	3.78	3.54
야외화장실	2.87	2.85	2.89	2.64	2.90	3.00
농촌마을환경(휴담장, 기와지붕 등)	3.19	3.46	3.00	3.14	2.91	3.31
생활편의시설(슈퍼마켓 등)	2.84	2.83	2.54	2.64	2.55	2.63
마을의 쉼터(휴식공간, 놀이터)	3.61	3.54	3.46	3.71	3.45	3.61
주차장 시설	3.77	3.77	3.68	3.93	3.64	3.96
체육시설(운동장, 등산로 등)	3.60	3.77	3.46	3.57	3.44	3.38
농기구 전시시설	3.56	3.80	3.46	3.93	3.50	3.52
식당	3.42	3.85	3.29	3.71	3.36	3.44

구된다.

방문목적별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전통적인 농촌의 전원경관을 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체험학습시설’(3.69), ‘기존농가이용 숙박시설’(3.76)에 대해서는 타 방문목적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반면, ‘야외화장실’(2.87)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자녀학습기회를 위해 방문한 경우, ‘농촌마을환경’(3.46), ‘체육시설’(3.77)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기존농가이용 숙박시설’(3.44)은 타 방문목적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농촌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는 타 방문목적에 비해 ‘야외화장실’(3.00), ‘주차장시설’(3.96)에 대해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편의시설’(2.63)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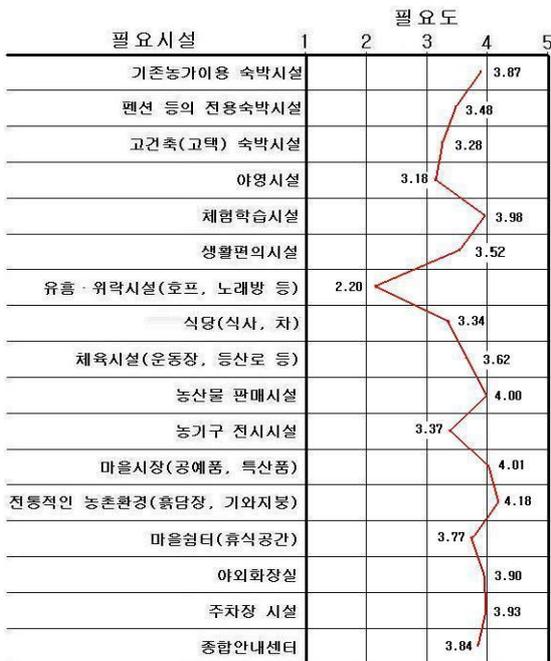


그림 4. 시설에 대한 필요도

3.3 시설에 대한 필요도 평가

농촌전통테마마을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시설 17개를 선정하여, 각 시설에 대해 「매우필요하다(5점), 필요하다(4점), 보통(3점), 필요하지 않다(2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의 5단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필요도를 물어 가중평균치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조사자의 시설에 대한 필요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림 4와 같이 휴담장, 기와 지붕과 같은 ‘전통적인 농촌환경’(4.18)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마을시장’(4.01), ‘농산물 판매시설’(4.00), ‘체험학습시설’(3.9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프, 노래방 시설과 같은 ‘유희·위락시설’(2.20)에 대해서는 필요도가 아주 낮게 나타난 시설로서 이는 농촌전통테마마을에서는 불필요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으로 볼 때, 방문객은 휴담장 등의 ‘전통적인 농촌환경’과 ‘마을시장’, ‘농산물 판매시설’ 등은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정비가 요구되며, 호프, 노래방 등 ‘유희·위락시설’은 도·농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도·농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그린투어리즘에 있어서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시설은 가급적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한편, 숙박시설과 관련한 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농가이용 숙박시설’(3.87)에 대한 필요도가 ‘펜션 등의 전용숙박시설’(3.48), ‘고건축(고택) 숙박시설’(3.28), ‘야영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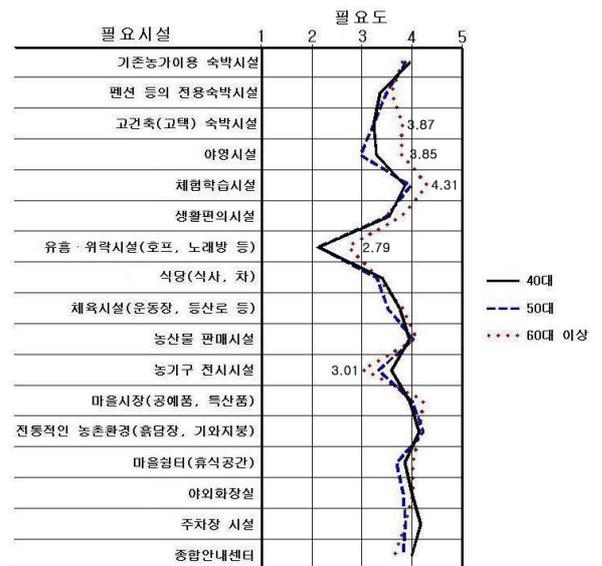


그림 5. 연령별 시설에 대한 필요도

(3.18)에 대한 필요도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린투어리즘 사업에서 기존농가의 활용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농가를 숙박시설로서 활용하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마을시장'(4.01)과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 판매 등의 '농산물 판매시설'(4.00)에 대한 필요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용객 대다수가 40대, 50대의 여성이란 점에서 농산물 구입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촌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 판매시설'과 '마을시장'의 정비가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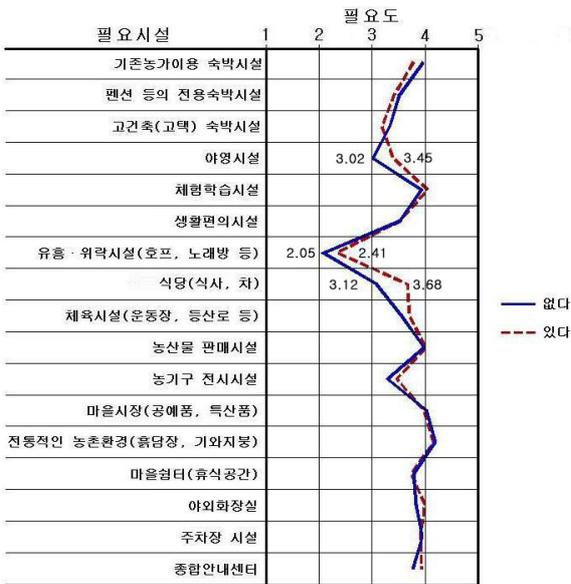


그림 6. 타농촌전통테마마을 방문경험의 유무에 따른 시설의 필요도

표 5. 방문 목적별 시설에 대한 필요도

시설	방문 목적	농촌 경관	자녀 학습	향토 음식	친목 도모	농산물 구입	농촌생활 체험
기존농가이용 숙박시설		3.81	3.62	3.82	4.07	3.55	3.90
펜션 등의 전용숙박시설		3.29	3.15	3.54	3.50	3.45	3.57
고건축(고택) 숙박시설		3.03	3.00	2.96	2.86	2.91	3.36
야영시설		3.06	2.58	3.32	2.86	3.36	3.17
체험학습시설		4.13	3.77	3.96	4.21	3.91	4.04
생활편의시설(슈퍼마켓, 컴퓨터실)		3.32	3.15	3.54	3.50	3.36	3.57
유흥, 위락시설(호프, 노래방 등)		1.97	1.69	2.11	1.79	2.00	2.23
식당(식사, 차)		3.26	3.00	3.68	3.36	3.45	3.32
체육시설(운동장, 등산로 등)		3.55	3.42	3.68	3.71	3.82	3.60
농산물 판매시설		4.06	4.23	3.89	4.14	3.91	4.02
농기구 전시시설		3.03	3.31	3.50	3.36	3.27	3.48
마을시장(공예품, 특산물 등)		4.06	4.23	4.00	4.07	4.00	4.02
전통적인 농촌환경(휴담장, 기와지붕 등)		4.45	4.42	4.29	4.50	4.09	4.20
마을의 쉼터(놀이터)		3.77	3.92	3.64	3.86	3.73	3.81
야외화장실		3.87	3.92	4.00	4.21	3.82	3.87
주차장 시설		3.87	4.00	3.96	4.43	3.82	3.98
종합안내센터(안내, 예약 등)		3.84	4.00	4.04	3.93	4.00	3.83

(2) 이용자 연령 및 방문목적별 시설에 대한 필요도

연령별 시설에 대한 필요도는 그림 5와 같이 60대 이상의 경우 '체험학습시설'(4.31)과 '야영시설'(3.85), '고건축(고택) 숙박시설'(3.87), '유흥·위락시설'(2.79)에 대해서 40대와 50대에 비해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농기구 전시시설'(3.01)의 필요도는 40대가 60대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농촌전통테마마을 방문경험 유무에 따른 시설별 필요도는 그림 6과 같이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 '야영시설'(3.45), '식당'(3.68), '유흥·위락시설'(2.41)에 대해 방문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통적인 농촌환경'과 '주차장 시설', '마을쉼터', '마을시장', '농산물 판매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방문목적별 시설의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로서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농촌의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마을을 방문한 경우 '체험학습시설'(4.13)과 '전통적인 농촌환경'(4.45)에 대해 타 방문목적보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학습을 위한 방문경우는 '농산물판매시설'(4.23), '마을시장'(4.23)에 대해 필요도가 높은 반면, '야영시설'(2.58), '유흥·위락시설'(1.69)에 대해서 필요성이 타 방문목적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농촌생활 체험을 위해 방문한 경우는 '생활편의시설'(3.57), '농기구 전시시설'(3.48)에 대해서 필요성이 타 방문목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도시주민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의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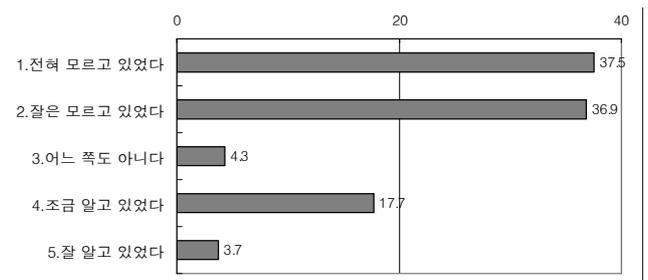


그림 7. 그린투어리즘의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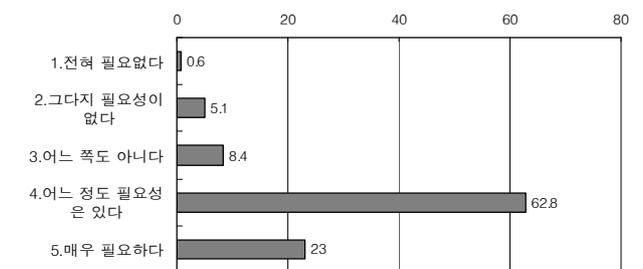


그림 8. 그린투어리즘의 필요성

4.1 도시주민의 그린투어리즘 평가

그림7은 ‘그린투어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⁶⁾을 조사대상자인 도시주민에게 제시하고, 그동안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74.4%에 달하는 조사대상자가 그린투어리즘을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하여 그린투어리즘의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그림8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그린투어리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매우필요하다(23.0%)’를 포함, 85.8%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가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여, 비록 도시주민에게 있어서 그린투어리즘의 인지도는 낮으나 그린투어리즘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9는 그래프 중에 표시한 10개 항목에 대하여, 그린투어리즘의 목적으로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매우중요하다(5점), 중요하다(4점), 보통(3점), 중요하지 않다(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의 5단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질문한 뒤, 가중평균치에 의해 분석한 결과이다.

‘레포츠, 레크레이션을 즐김(3.48)’을 제외한 9개 항목이 평균 4점 이상을 득하여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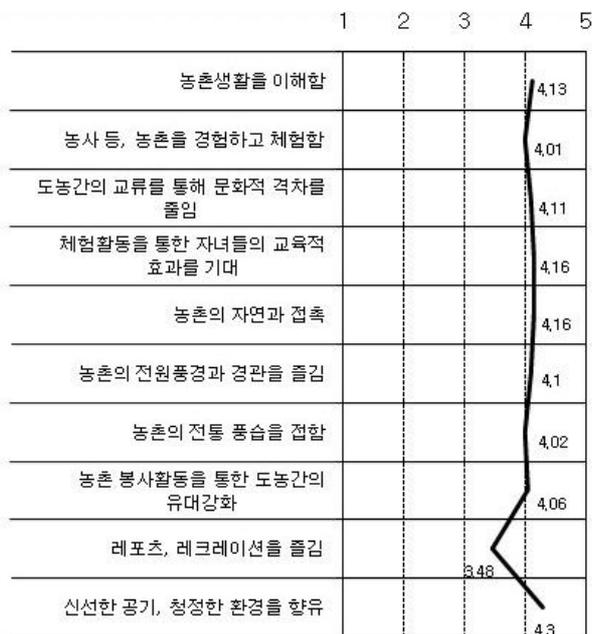


그림 9. 그린투어리즘 목적의 중요도

6)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활용한 체험위주의 관광을 통하여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관광의 한 형태임’ 이라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음.

응답자 속성별로 보면, ‘농사 등, 농촌을 경험하고 체험함’의 항목을, 농촌 거주력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주민들은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린투어리즘의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도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도시주민의 그린투어리즘 이용현황

조사대상자에게 그린투어리즘을 경험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60%을 넘는 수가 ‘없다’고 대답했고, 37.9%만이 경험한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린투어리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조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이하 동일) 그린투어리즘 이용빈도에 관해 조사한 결과(그림10)를 보면, 40%을 넘는 수가 연 1,2회 이하로 이용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그린투어리즘의 이용에 대한 의향에 있어서는 반 수가 넘는 52.6%가 기회가 되면 또 이용해보고 싶다고 대답했고, ‘자주 이용할 생각이다’ 와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도 각각 17.1%와 16.3%의 응답율을 보여, 그린투어리즘 이용에 대한 도시주민의 의향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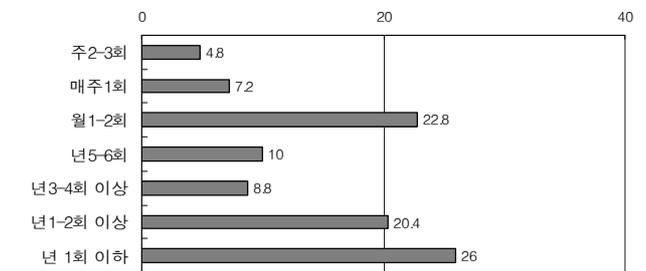


그림 10. 그린투어리즘의 경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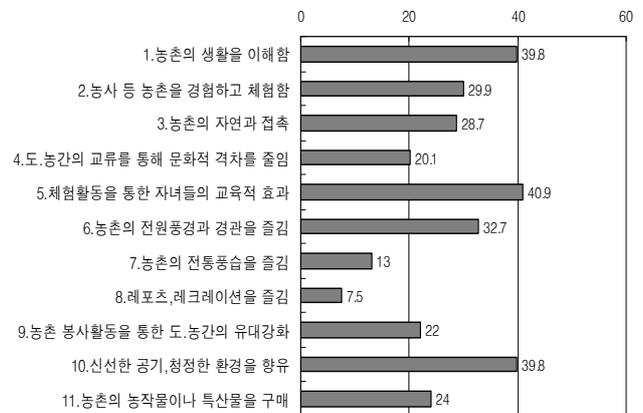


그림 11. 그린투어리즘 경험에서 얻은 좋은 점

그림11은 그린투어리즘을 경험하여 얻은 좋은 점은 무엇인지 그래프중의 11항목에 대하여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결과이다. ‘체험활동을 통한 자녀들의 교육적 효과(40.9%)’, ‘신선한 공기, 청정환경을 향유(39.8%)’, ‘농촌의 생활을 이해함(39.8%)’이 거의 같은 비율로 높은 응답을 얻었다.

5. 결론

이상의 결과로부터의 종합적 고찰 및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체제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주차장시설에 대한 만족도(3.9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험학습시설, 마을쉼터, 기존 농가이용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슈퍼마켓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2.66)과 야외화장실 등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로서 전통적인 농촌환경(4.18)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제기 되었으며, 마을시장과 농산물 판매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험학습시설과 기존농가이용 숙박시설, 야외화장실에 대해서도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호프, 노래방과 같은 도시적 성향이 강한 유흥·위락시설(2.20)은 필요도가 낮아 이러한 시설은 가급적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만족도가 낮은 시설과 필요도가 강한 시설에 주목하여 금후,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시 이들 시설에 대한 정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 도시주민들은 상당수가 그린투어리즘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으나, 그린투어리즘의 의미를 인식한 후에는 그린투어리즘의 도농교류를 위한 여러 목적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린투어리즘의 필요성 또한 매우 강하게 느끼고, 앞으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이용 의향 또한 강하게 나타나, 우선 그린 투어리즘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그린투어리즘은 도농교류에 있어 효과적인 방편으로 활용하여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 양쪽에 그린투어리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시켜야하며, 금후 그린투어리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촌 정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마을경관 정비에 있어서 전통적인 농촌의 전원경관 형성을 위하여 건물과 지붕형태 등을 초가집 및 기와집 등 고유의 농촌주택유형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블록 및 벽돌담장을 흙담장, 돌담장으로 개선하여 전통적인 농촌골목풍경을 연출함은 물론, 농지와 하천 등에 있어서도 자연상태로서 보존되는 농촌적 분위기를 연출하여야 한다.

둘째, 체제시설의 정비에 있어서는 야외화장실과 세면장

의 수를 늘려 체험장을 비롯한 마을 곳곳에 배치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에 있어서도 기존 농가 이용시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기존 농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방문객 대부분이 여성이란 점에서 위생과 프라이버시의 성격이 강한 시설인 화장실, 욕실, 독립된 침실 등과 같은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용자의 농산물 구입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산물 판매를 통한 수입증대의 수단으로 농산물 가공,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시설 및 마을 시장의 설치가 필요하며, 형태에 있어서도 옛날 저잣거리와 같이 농촌경관과 잘 어울리는 형태를 갖추고 주차장과 같은 마을 이용객은 물론 등산객 등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그린투어리즘의 이용자와 일반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여 그린투어리즘 개발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의식조사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내용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농촌마을의 구체적인 정비 방향을 제안하는 것 등은 금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이호철,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사회 개발 방안: 대구시 시민 농원개발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0집,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 pp.167-203
2. 유승우 외, “일본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농촌경제, 제24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p.47-62
3. 김범수 외, “한국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비교연구”, 관광연구, 제16권 제1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01, pp.83-103
4. 정안성,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전북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5권 2호, 한국산림휴양학회, 2001, pp.35-49
5. 이동기, “농촌자원을 이용한 그린투어리즘”, 지방자치발전 및 행정개혁 동계학술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6. 정기환,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제24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p.139-162
7. 송미령, “농촌마을 관광모델과 주민참여 방안”, 여가와 농촌 활성화 심포지엄, 전국 농업기술자협회/삼성경제연구소, 2001

(接受: 2009.04.05)